2008학년도 경찰대학 제1차 시험 (언어영역)

※ 총 12쪽 5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그의 이번 신곡이 크게 인기를 얻을 것은 뻔한 일이다.
② 대학은 진리의 탐구와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다.
③ 그녀는 제법 눈맵시가 있어 옷 색깔을 잘 맞추어 입었다.
④ 그들은 한적한 오솔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내일을 설계했다.
⑤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언어는 민족 얼의 반영이요, 민족 정신의 핵심이요, 민족 사회의 보물이다.

2. <보기>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끼리 묶인 것은?

<보기>
꽃이 나팔 같다 → 나팔 같은 꽃 → 나팔꽃

① 기차여행, 촛불, 콧노래, 팔베개
② 나무배, 싸락눈, 여우비, 유령회사
③ 도둑심보, 띠구름, 소걸음, 실고추
④ 목욕수건, 새그물, 쌀가게, 썰매길
⑤ 가죽장갑, 종이비행기, 콩떡, 흙가루

3. 글을 고쳐 쓰기 위하여 제시한 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가) 고기는 덩어리가 아니면 <u>찢는데</u> 힘이 들므로 반드시 덩어리 고기를 이용해야 한다.
(나) 돼지 고기는 연분홍색을 띤 덩어리 고기로 결이 곱고, 매끈하며 탄력이 있고 기름기가 없는 것을 골라서 찬물에 주물러 씻어 <u>피물</u>을 뺀다.
(다) <u>굵은 파</u>는 지나치게 뻣뻣한 것을 피하고 특히 잎 부분이 싱싱한 것으로 골라 깨끗이 다듬은 다음에 푸른 잎 부분만 2등분한다.
(라) 마늘은 <u>겉껍질</u>을 벗겨 내고 깨끗이 씻어 놓는다.
(마) 삶은 돼지 고기는 사방 4cm 정도로 <u>깍둑 썰기</u> 하여 앞뒤가 노릇하게 지져낸 다음에 물과 진간장, 술, 설탕을 섞은 장에 넣어 간이 배도록 은근히 조린다.

① (가)는 '데'가 의존명사니까 '찢는 데'로 띄어 써야 한다.
② (나)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핏물'로 써야 한다.
③ (다)는 '대파'의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이니 '굵은파'로 붙여야 한다.
④ (라)는 '겉껍질'이 '겉'과 '껍질' 두 개의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⑤ (마)는 '깍둑'이 부사가 아니라 '깍둑썰기'가 하나의 명사로 쓰이니 붙여 써야 한다.

4.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의 자기 소개서다. 이 글을 다듬기 위한 지적 중 타당하지 <u>못한</u> 것은?

저는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김경대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릉 근교의 한 어촌입니다. 아름다운 산천과 맑고 깨끗한 공기, 그 곳에서 저는 때로 엄격하시지만 인자한 부모님과 사랑스런 동생들, 그리고 소박하고 정이 많은 이웃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한 편입니다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생활에 관심을 두고, 태권도도 익히고, 해양소년단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미술반에 가입하여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야외 스케치 활동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나아가려는 방향이 아직은 확고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은 아주 확고합니다.

① 준한: 아직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 급변하는 정보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② 안나: 글 전체에서 글의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대학을 선택한 이유와 학과 공부에 대한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해.
③ 지효: 학교 공부 외에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 그 활동들을 하면서 얻은 느낌과 교훈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
④ 영희: 부모님과 이웃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부모님과 이웃의 영향을 받아 나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금 더 보충했으면 좋겠어.
⑤ 철수: 평범하고 단순한 도입보다는 나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색깔이나 소리, 혹은 별명 등을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하면 눈에 띄지 않을까?

5. 밑줄 친 부분의 높임 표현이 옳지 못한 것은?

① 명희 어머님이 몹시 언짢으신가 봐.
② 할아버지께서 지팡이가 부러지셨어요.
③ 국어 선생님께서는 아마 교무실에 계실 겁니다.
④ 변변히 차리지 못하였습니다만, 많이 잡수십시오.
⑤ 옥희 아버지는 수술한 자리가 그렇게 편찮으시대.

6. 주어진 두 속담이 반대의 의미로 쓰일 수 없는 것은?

① 빛 좋은 개살구 : 개살구도 맛 들일 탓
② 그 아비에 그 자식 : 아비는 아비, 자식은 자식
③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 :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
④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

7.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논지 전개 과정으로 보아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지의 전개 과정	주요 내용
문제의 실태	외국인 근로자, 여성 결혼 이민자, 새터민 등의 증가에 따른 언어 소통의 문제와 세대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있다.
↓	↓
문제의 원인	- 우리 사회의 국제화 및 다변화 추세에 따른 준비가 부족했다. - 젊은 층의 언어 질서 파괴에 따른 세대 간의 언어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	↓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 국제화 및 다변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련 부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구체적 문제 해결 방안	[가]

*새터민: '탈북자'를 가리키는 표현.

① 국제화, 다변화에 따른 국민 의식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실질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한다.
②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제화, 다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해당자들을 위한 언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분석을 바탕으로 세대 간 언어 차이의 원인과 실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을 위한 언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새터민은 제도적, 사회적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부적응과 생활상의 문제가 더 시급하므로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정한다.
⑤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 직업 훈련 과정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두게 한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대나 3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작가들의 어휘는 자못 풍부했었다. 오늘날은 까맣게 잊혀지다시피 한 많은 단어들이 그들의 작품에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1) 거레: 영화가 늦기 때문에 공연히 거레를 한 것이지마는……. (염상섭, '삼대')
(2) 켯속: 그의 애를 조리게 하는 또 다른 켯속에 있기 때문이다. (현진건, '무영탑')
(3) 잔입: 연산은 소세를 마치고 잔입으로 편으로 납시었다. (박종화, '금삼(錦衫)의 피')
(4) 나우: 서울로 가면 내 정식으로 월급을 나우 주지. (채만식, '탁류')
(5) 구듭: 의오라비 구듭을 끝까지 치워 주고……. (심훈, '영원의 미소')

이들은 우리 민족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순수한 국어 단어들의 몇 예에 지나지 않는다. 국어의 어휘는 우리 민족이 머리 속에 소중히 간직했다가 후손에 물려줌으로써 그 생명력을 보존해 온 것이다.

이 구슬같은 보배들이 우리 세대에 와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 현대인은 민족의 큰 죄인이 될 것이다.

8. 위 글에 있는 어휘의 사전적 설명 중 문맥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레: (명) 까닭 없이 어정거려 몹시 느리게 움직이는 것.
② 켯속: (명) 포개어진 물건의 층 사이.
③ 잔입: (명)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아무 것도 먹지 아니한 입. 마른 입.
④ 나우: (부) 좀 많게. 정도가 좀 낫게.
⑤ 구듭: (명) 귀찮고 괴로운 남의 뒤치다꺼리.

9. <보기>의 조건을 반영해 공익 광고 문안을 작성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되 거부감이 없도록 할 것
- 위 글에 보인 예를 적절히 사용할 것
-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을 담을 것

① 잔입과 구듭! 공부합시다!
작년도 한국어인증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② 거레, 켯속, 잔입, 나우, 구듭.
이 말을 모르신다구요?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로군요.
③ 나우, 잔입!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
당신의 우리말 실력을 보여 주세요!
④ 거레, 켯속, 잔입, 나우, 구듭, …….
우리의 선조가 사용하던 말.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말도 변하는 것!
⑤ 석굴암과 불국사만이 아끼고 가꿀 대상은 아닙니다.
'거레, 켯속, 잔입, 나우, 구듭'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10-11] 다음은 고려 태조 왕건의 취임사를 가상하여 만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신라 말기 이래의 혼란과 분열이 극에 달하였던 시기는 이제 지났습니다. 고려의 건국이 가지는 의미는 후삼국 시대 이후 한반도의 영토가 단순히 통일되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자면 삼국 통일 이후 신라 사회는 새로 편입된 고구려와 백제의 땅과 백성들을 한 나라 한 겨레로 묶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으로 피폐된 백성들의 삶의 안정을 위한 사회 체계의 수립도 필요하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특정 귀족만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폐쇄적인 신분 제도를 유지하여 온 것입니다. 신라 말기에 백성들이 보여준 곳곳에서의 봉기와 지방 호족들의 할거는 어쩌면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당연한 움직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통합이 명실상부한 겨레의 통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신라 사회의 골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평등한 신분 질서를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기존의 귀족 계층 여러분이나 지방의 호족 여러분들께는 다소 낯설고, 다소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귀족 계층의 여러분이나 지방 호족 여러분들께서도 하루 빨리 새로운 사회의 질서에 동참하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새 정부는 여러분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벗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0. 밑줄 친 '새로운 시대'의 이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혁과 통합
② 개방과 번영
③ 책임과 의무
④ 평등과 자유
⑤ 명예와 평화

11. 위 글로 미루어 이후 왕건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호족의 세력 약화를 위한 토지 몰수
② 학문 장려를 위한 교육 기관의 설립
③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한 군비 확장
④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화폐 제도의 도입
⑤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장성의 축조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부터 구주 안의 풍토는 비록 다르오나 지방의 말에 따라 문자를 달리 만든 사례가 없사옵고, 오직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의 무리들만이, 제 나름의 문자를 만들어 가졌지만, 이것은 모두 오랑캐의 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못 되옵니다. 옛글에, ㉠하(夏)로서 이(夷)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지마는, 화하가 이적(夷狄)으로 변한다는 말은 듣지 못 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는 모두 우리나라에 기자의 유풍이 있다 하고,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신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나)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 역시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설총은 옳다 하면서 임금이 하는 일을 그르다고 하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야비한 이언이오나, 반드시 익히고자 하면 먼저 몇 가지의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옵는데, 이두를 쓰는 자라도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가 통하기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된 자가 자못 많사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했다면 언문을 빌어서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오히려 가할 것이나, 그래도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방편 하기보다,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기만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진실로 관리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곧 후진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27자 언문으로 족히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구주(九州): 중국을 가리키는 말.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u>못한</u> 것은?

① (가)에서 문자를 따로 만드는 것은 오랑캐가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나)에서는 설총의 이두 제작을 반대하고 있다.
③ (나)에서 한글과 이두의 기능적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다)는 한글과 이두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⑤ (다)에서는 이두가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13. ㉠에 부합하는 사례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차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적이 있었다.
② 로마인들이 그리스의 알파벳을 수용하여 로마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
③ 제임스 와트는 증기 기관을 고안하여 산업 혁명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④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여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⑤ 미국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대통령 중심의 합중국 체제를 갖추었다.

14. ㉡의 뜻과 가장 잘 통하는 것은?

① 안고수비(眼高手卑)　② 사통오달(四通五達)
③ 설왕설래(說往說來)　④ 동족방뇨(凍足放尿)
⑤ 이심전심(以心傳心)

15. 문자를 바라보는 (나)와 (다)의 시각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	:	(다)
①	편의성	:	학문 궁리
②	실용성	:	창의성
③	자주 정신	:	실용성
④	자주 정신	:	창의성
⑤	학문 궁리	:	자주 정신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neo)'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유일함(one)'의 철자를 바꾸어 만든 이름이다. <다빈치코드>에 나오는 박물관장은 죽임을 당하기 전 ㉠<u>괴상한 수열을 남긴다</u>. 13-3-2-21-1-1-8-5. 숫자의 순서를 바꾸어 1-1-2-3-5-8-13-21로 배열하게 되면 자연물에 황금비를 부여한다는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 관장은 괴상한 수열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암호도 남겼다.

O, Draconian devil (오, 냉혹한 악마여)
Oh, lame saint (오, 불구의 성인이여)

이 표현 속에 든 철자의 자리를 바꾸면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개의 이름을 얻게 된다.

Leonardo da Vinci (레오나르도 다빈치)
The Mona Lisa (모나리자)

이를 바탕으로 주인공은 사건을 추적하게 된다.

서구에서 최초로 애너그램을 사용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시인 리코프론이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지배자의 이름인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의 철자를 바꾸어 '꿀로 된(apo melitos)'이라는 어구를 만들어냈다. ㉡<u>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과연 꿀처럼 달콤했던 왕이었을까</u>?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언어의 특성으로 자의성(恣意性)과 함께 선조성(線條性)을 들었다. 언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마치 실에 염주알을 꿰듯이 철자를 순차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너그램은 선조성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선처럼 흐르는 시간을 거부한다.

이 독특함 때문일까? 실은 소쉬르도 한때 애너그램의 연구에 몰두했었다. 일상 언어의 질서를 거부하는 애너그램의 특성을 그는 ㉢<u>시어(詩語)의 특성</u>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시를 짓는 것이 곧 애너그램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가 아닌가.

오늘날 시간은 가역적으로 되었다. 연극의 시간과 달리, 영화 속의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얼마든지 거꾸로 흐른다. 비디오나 DVD는 상연이 끝나 과거로 흘러간 시간을 다시 현재로 데려온다. 이것은 영겁회귀의 시간이다. 놓쳐 버린 텔레비전 방송을 인터넷 위에서 다시 불러낼 때, 시간은 마우스로 클릭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네오'라는 이름은 그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인터넷 공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마우스의 클릭으로 조정될 수가 있다.
③ 언어의 자의성은 애너그램이 지니고 있는 시어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④ 선조성의 원리는 연극의 시간과도 마찬가지로 가역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연극의 시간과 영화의 시간은 애너그램의 속성을 지니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

17.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② 피보나치의 수열을 설명하기 위하여
③ 불구의 성인이 네오나르도 다빈치임을 암시하기 위하여
④ 자신이 남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기 위하여
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18. ㉡에 나타난 글쓴이의 표현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① 미혜: 프톨레마이오스는 훌륭한 임금이야. 놀림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았어.
② 영희: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애너그램은 시인이 왕에게 바치는 아부의 헌사였군.
③ 철수: 리코프론은 참 엉뚱한 시인이야. 시를 통해서 언어학의 새 장을 열다니.
④ 종수: 애너그램은 리코프론이 임금의 이름을 대상으로 지적인 실험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
⑤ 지영: 리코프론은 애너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문법을 연구한 거야.

19. 다음 시에서 ㉢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은?

눈보다도 먼저
(가)겨울에 비가 오고 있었다.
바다는 가라앉고
바다가 있던 자리에
(나)군함(軍艦)이 한 척 닻을 내리고 있었다.
(다)여름에 본 물새는
죽어 있었다.
물새는 죽은 다음에도 울고 있었다.
눈보다도 먼저
겨울에 비가 오고 있었다.
바다는 가라앉고
바다가 없는 해안선을
(라)한 사나이가 이리로 오고 있었다.
(마)한쪽에 죽은 바다를 들고 있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왕이 소공 과(過)와 내사(內史) 과(過)를 보내어 진 혜공을 제후로 임명하자, 진의 대부 여생(呂甥)과 극예(郤芮)는 제후 임명식을 거행할 때 진후 혜공을 불경스럽게 대하였고, 진후는 홀을 낮게 들고서 내사에게 배수(拜首)만 하고 계수(稽首)하지 않았다.

내사 과가 돌아와서 양왕에게 고하였다. "진이 설사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제후에게는 후손이 없을 것이고, 여생과 극예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어째서 그러한가?" 내사 과가 대답하였다. "하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임금이 없으면 누구를 받들 것인가? 임금에게 백성이 없으면 누구와 함께 나라를 지킬 것인가?' 또 상서의 탕서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 천자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백성들 ⓐ탓이 아니오, 백성들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로다.' 상서의 반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면 너희 백성들 ⓒ탓이요, 나라가 잘 안 되면 오직 나에게만 죄가 있는 ⓓ탓이로다.' 이러하니 군주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과 제사 등의 대사(大事)입니다.

선왕께서는 이러한 대사가 반드시 백성들의 도움에 의해서만 치러진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선왕께서는 사심을 털어내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올바르고 마땅하게 헤아려서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사물의 법도를 환하게 아셔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백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세워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털어 내시는 것은 정(精)이고, 올바르고 마땅하게 헤아리시는 것은 충(忠)이며, 사물의 법도를 환하게 아시는 것은 예(禮)이고, 백성들이 믿고 따르도록 시행하시는 것은 신(信)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털어내지 않으면 나라가 화합되지 못하고, 올바르고 마땅하게 헤아리지 않으면 가르침이 순조롭지 않고, 백성들이 믿고 따르도록 하지 않으면 제도가 올바로 행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배수(拜首): 서서 절하는 예법.
*계수(稽首): 머리를 땅에 닿게 조아리는 예법.

20. 위 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옛 경전의 소중함　② 위정자의 기본 자세
③ 백성들의 교화　④ 신하들이 지켜야 할 도리
⑤ 예법의 원리

21.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말하게 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양왕이 혜공을 제후로 임명했기 때문에
② 진의 대부가 내사 과를 홀대했기 때문에
③ 극예가 양왕을 불경스럽게 대했기 때문에
④ 여생과 극예가 대부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⑤ 혜공이 양왕에 대해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22. ⓐ~ⓔ 중, 그 쓰임이 문맥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3.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　) 속에 들어갈 말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진후가 즉위하여 안팎으로 한 약속을 어기고 충신을 학살하고 있으니 이는 (　)을/를 저버린 것이고, 왕명을 공경하는 법도를 잃었으니 이는 (　)을/를 저버린 것이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행하니 이는 (　)을/를 저버린 것이다.

① 신-예-충　② 신-충-예　③ 예-신-충
④ 충-신-예　⑤ 충-예-신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좌절과 상실을 당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외향적 공격성을 보이는 ㉠원(怨)과 무력한 자아를 되돌아보고 자책하고 한탄하는 내향적 공격성인 ㉡탄(嘆)이 한국의 고유한 정서인 한(恨)의 기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체념의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른바 한국적 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적, 퇴영적인 자폐성과 허무주의, 패배주의 등은 이러한 체념적 정서의 부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체념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체념에 철저함으로써 달관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 세상의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관조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한국적 한의 또 다른 내포다. 그것은 바로 '밝음'에 있다. 한이 세상과 자신에 대한 공격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와 대상에 대하여 연민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풍부한 감수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情)으로서의 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이 간절한 소망과 연결되기도 한다. 결핍의 상황으로 인한 한이 그에 대한 강한 욕구 불만에 대한 반사적 정서로서의 간절한 소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원(願)으로서의 한'이다.

(나) 한국 민요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민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아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슬프지만 슬픔과 함께 해학을 가지고 있어서 민요에서의 ㉤해학은 향유자들이 슬픔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예컨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라고 하는 아리랑 사설 같은 것은 이별의 슬픔을 말하면서도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라는 해학적 표현을 삽입하여 이별의 슬픔을 차단하며 단순한 슬픔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복잡한 의미 구조를 창조한다.

아무리 비장한 민요라고 하더라도 해학의 계속적인 개입이 거의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 한국 민요의 특징이나 한국적 미의식의 특징을 한마디 말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해학을 드는 편이 무리가 적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비애 또는 한이라고 하는 것을 대량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일부의 현대시와 일제하의 유행가다. 김소월의 시도 그 예가 될 수 있고, '황성 옛터', '타향살이' 등의 유행가를 생각한다면 사태는 분명하다. 이런 것들에는 해학을 동반하지 않은 슬픔이 확대되어 있다.

(다) 담 넘어 갈 때는 큰 맘 먹고
문고리 잡고는 벌벌 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다 놀고 가세

청천 하늘에 별도 많고
홀아비 살림에 말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다 놀고 가세

㉦문경 새재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다 놀고 가세

(라) 팔자 좋은 사람은 이후후
그늘 속에 앉았건마는 이후후
우리들은 밤낮으로 이 짓일세 이후후
세상에 불쌍한 것 이후후
우리 농부밖에 없구나 이후후
한을 한들 무엇할고 이후후
없느나니 이 고생일세 이후후

24. (가)와 (나)의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① 한국 문화의 중요한 지표로 (가)는 한을, (나)는 해학을 들고 있다.
② (가)는 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나)는 한의 부정적 측면을 전제하고 있다.
③ (가)는 한을 한국 문화의 원류적인 것으로, (나)는 시대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④ (가)는 한의 부정적 측면을 지양할 것을, (나)는 해학 전통을 계승할 것을 강조한다.
⑤ (가)는 한이 갖는 내포를 분류하였고, (나)는 민요를 중심으로 해학의 근거를 찾았다.

25.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매질에 이 몸 죽으면 귀신 되어 그 한을 풀리로다.
② ㉡: 농부들 하는 말이 여자가 한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 내리니 춘향 한을 어이할고.
③ ㉢: 제비도 못 잊어서 다시 돌아와 이별을 안타까워 하는 듯. 홍부는 한이 많은 사람이라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하는구나.
④ ㉣: 심청 팔자 무상하여 맹인 아비뿐이온데, 아비의 평생 한(平生恨)이 눈뜨기에 있사온데, 백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아비 눈을 뜬다 하나 가세가 빈한하여 가진 것이 몸밖에 없사오니 이 몸 사갈 사람 지시하여 주옵소서.
⑤ ㉤: 내 도복 좀 내오소. 아이고, 도복은 어따 또 두었소? 아, 장 안에 두었지.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어요? 지랄허고 있다. 시방 닭의장은 장 아닌가?

26.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와 (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다) 한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 팔자 좋은 사람을 자신의 삶에 대비하여 얻는 달관.
② (다) 슬픔과 해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 팔자 좋은 사람에 대해 연민을 갖는 정(情)으로서의 한(恨).
③ (다) 슬픔이 보이지 않고, 해학도 빠져 있다.
(라) 팔자 좋은 사람에 대하여 외향적 공격성을 보이는 원(怨).
④ (다) 슬픔에 비하여 해학이 중심에 놓여 있다.
(라) 팔자 좋은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원(願)으로서의 한(恨).
⑤ (다) 해학의 개입으로 슬픔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라) 팔자 좋은 사람에 견주어 내향적 공격성을 보이는 탄(嘆).

27. 작품의 분위기로 볼 때, ㉥이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삶의 고난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② 퇴폐적인 향락 문화가 침투한 것이다.
③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의식의 표출이다.
④ 이별의 아쉬움을 드러내려는 의지의 발로이다.
⑤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을 잊겠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28.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큰 물에 큰 고기 논다.
② 말 깨나 하는 놈 재판소 간다.
③ 며늘아기 잔다고 시어머니 송사한다.
④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님네 논밭이 늘어간다.
⑤ 밭 잃고 집 잃은 동무들아 어디로 가야만 좋을까 보냐.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기타 사회 제도들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영향을 준다. 합의 이론은 사회 규범과 도덕 규범에 대한 전반적 합의와 사회의 모든 요소들과 관련된 공통적 이해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법의 내용과 운용을 설명한다. 갈등 이론은 법과 형사 사법 체계가 전체적인 사회의 이해 관계나 규범보다는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집단의 이해 관계와 규범을 구체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법은 사회에서 힘없는 집단을 부당하게 낙인 찍고 처벌하는 형사 사법 체계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합의 이론과 갈등 이론에 대한 경험적 자료는 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범죄에 대한 여론 연구, 검거·유죄 판결·형벌에서의 인종·계급·성별·연령에 의한 불공정성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온다. 경험적 연구는 다원적 갈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핵심적 법 규범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지만, 입법과 법의 집행에서는 경쟁적 이익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는 인종 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가 형사 사법 체계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편 형사 사법 체계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도 보여 주지 못한다.

그러나 다수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형사 사법 체계가 법 외적 변수보다는 법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에 입각하여 운용된다는 결론을 지지하는데 이는 극단적 갈등 이론과는 대조적인 것이며 다원적 갈등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갈등 이론은 범죄를 문화적 갈등이나 집단 갈등 속에 휩쓸린 개인의 행동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범죄 행위에 관한 이러한 이론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동기로 인한 범죄는 갈등 이론과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이나 살인, 절도, 방화,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 범죄와 같은 대다수의 범죄에는 갈등 이론이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갈등 이론은 형사 사법 체계의 운용이나 범죄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서보다는 법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더 큰 경험적 지지를 받는다.

갈등 이론과 합의 이론은 모두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공정하게 대표되고, 법과 형사 사법 체계가 비차별적이라는 점을 암시적으로 지지하지만 갈등 이론이 범죄 행위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29. 위 글로 미루어 성립하기 어려운 진술은?

① 외국인 이주자가 이전에 살던 나라의 관습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이주해 온 국가의 법을 위반할 수 있다.
② 다원적 갈등 이론은 경쟁적 이익 집단이 입법과 통치를 통해 그들의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민주 사회에 적용된다.
③ 한 국가 내에서 농촌 이주자들이 도시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면, 도시의 법과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
④ 갈등 이론은 입법, 법 위반, 법 집행의 모든 과정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이익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권력 차이에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⑤ 합의된 규범과 사회 가치, 사회 체계의 질서정연한 균형, 사회 통합이라는 법의 궁극적 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는 극단적 갈등 이론의 경험적인 사례를 잘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30. 위 글에 나타난 '합의 이론'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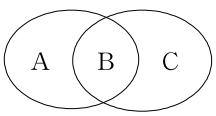
① 법의 내용과 본질은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인 유기적 연대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② 사회의 통합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법의 통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③ 법의 내용은 공식적 법 개정에 의하거나 법원이 행하는 법 적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법은 힘있는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것이다.
⑤ 어떤 사람은 범죄를 범하고 어떤 사람은 왜 범하지 않는가를 묻기보다 '어떤 행위는 범죄로 정의되지만 어떤 행위는 왜 범죄로 보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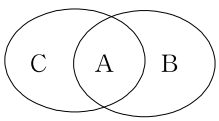
31. '갈등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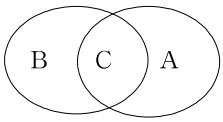
①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친구에게 사기 협박을 하는 경우.
② 저항이나 혁명이 성공하여 이전의 지배자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태.
③ 이민자가 모국의 관습에 따라 행동하다가 이주한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것.
④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행동주의자들이 낙태를 하는 병원의 문을 닫게 하는 행위.
⑤ 흑인 차별법을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흑인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백인 지상주의자들이 오늘날에는 시민 권리에 관한 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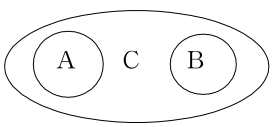
32. 위 글에서 언급한 세 이론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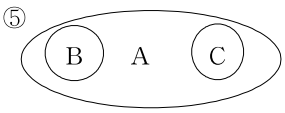
A=갈등 이론, B=합의 이론, C=다원적 갈등 이론

①


②


③


④


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장은 심방과 심실이라는 네 개의 작은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른쪽 심실에서 나온 혈액은 허파를 지나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바뀌어 왼쪽 심방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들어온 혈액은 왼쪽 심실의 펌프질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오른쪽 심방 벽에 주기 조정자가 있다. 이곳에서 전기파를 방출하면 이로 인해 심장의 근육들은 하나의 박자에 맞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펌프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상 동맥이 막혀 심장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면 주기 조정자가 방출한 전기파가 한 곳을 맴돌게 되면서 1분에 800번까지 뛰게 만들기도 하고, 심방과 심실이 제각기 뛰도록 만들어 펌프질이 엉망이 되기도 한다.

의학자들은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항상성의 개념으로 설명해 왔다. 건강한 생명체란 질서와 균형을 통해 정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질서를 잃는 것'을 질병(disorder)이라고 하였다. 과학자들은 보다 작고 정교하면서도 효과적인 전기 충격 장치를 개발하는 데 몰두하였다.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순간을 포착해 전기 충격파를 발생시킴으로써 심장 발작이나 그로 인한 급사를 95% 이상 막아낼 수가 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최근에 밝혀낸 심장 박동의 운동은 질병에 대한 의학자들의 ㉡고정 관념을 흔들어 놓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노쇠할수록 심장의 불규칙성이 떨어진다. 건강한 사람의 뇌파도 혼수 상태에 빠지면 단순하고 주기적인 모양으로 바뀌고, 건강한 사람의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백혈구의 농도도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수치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변하게 된다. 결국 생명체는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불규칙적이지만 유연하고 역동적인 상태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3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뇌파를 보인다.
② 심실에는 주기 조정자가 있어서 피를 온몸에 펌프질한다.
③ 사람은 노쇠할수록 심장 운동이 불규칙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④ 의학자들의 심장병에 관한 연구를 물리학자들이 뒷받침하였다.
⑤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생명체의 운동에 관한 또 다른 인식을 하게 되었다.

34. ㉠의 '수축, 이완'과 의미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동물 : 사슴　② 서론 : 본론　③ 압축 : 복원
④ 은총 : 총애　⑤ 축소 : 해이

35. ㉡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만으로 묶인 항목을 찾으면?

ⓐ 질병은 질서를 잃는 것이다.
ⓑ 항상성이 유지될수록 건강하다.
ⓒ 뇌파가 불규칙할수록 건강하다.
ⓓ 환자의 백혈구 수치는 규칙적이다.

① ⓐ, ⓑ　② ⓐ, ⓑ, ⓒ　③ ⓐ, ⓑ, ⓒ, ⓓ
④ ⓐ, ⓒ　⑤ ⓑ, ⓒ, ⓓ

36. 위 글을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 질문을 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주기 조정자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② 물리학자들은 건강한 생명체를 규칙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가?
③ 의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이 밝힌 사실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고 있는가?
④ 무생물의 질서 정연함과 생명의 불규칙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⑤ 전기 충격 장치가 심장 발작 사망률을 95% 이상 막아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저 여기 살아요.
　그날 제 품에 숨긴 칼로 낙랑의 북을 찢을 때
　제가 찢은 것은
　적이 오면 저절로 운다는 자명고가 아니었어요.
　제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아버지의 ㉠<u>나라</u>를 찢었습니다.

(나) 서라벌
　㉡<u>월문 밖</u>에
　원(願)을 세워 타는 숨결

　불의 꿈 끄지 못한
　봉두난발 눈이 부셔

　여왕은
　황금팔찌로
　그 가슴에 머무셨다.

(다) 내 핏덩이 강보에 누웠을 적
　캄캄한 동냥젖 아니셨더면
　정녕 ㉢<u>세상</u> 구경 웬말일진가
　한밤을 울어
　당신 마른 젖가슴을
　한(恨)턴 눈물을
　헐헐히 삭아내린 그 가슴팍을
　정녕 내 정녕
　어이 잊을진가

(라) 초립에 쾌자를 걸친 조라치들이
　날나리를 부는 저녁이면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
　이리하여 ㉣<u>장터</u> 어느 넓은 마당을 빌어
　램프불을 돋운 포장 속에선
　내 남성이 십분 굴욕되다

(마) 허망한 꿈에서 일어나
　피도 살도 이미 버리고
　넉넉함으로 넉넉함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 보인다
　무량정토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따라
　하늘의 꽃 비같이 내리는
　㉤<u>서방정토</u>에 돌아가는 길

3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모두 우리의 고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② (가)와 (다)의 시적 화자는 여성이다.
③ (나)는 시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④ (나)와 (라)는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⑤ (다)의 '-ㄹ진가'는 시적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8. (가)~(마)에 나오는 시어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 낙랑, 아버지의 나라: 화자가 공주임을 알 수 있게 한다.
② (나) 봉두난발, 황금팔찌: 두 인물의 신분적 차이를 암시하고 있다.
③ (다) 강보, 동냥젖: 화자에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라) 향단이, 남성: 향단이는 남성이 사랑하는 상대이다.
⑤ (마) 허망한 꿈, 한 줄기 빛: 세속적 성공의 허망함을 통한 깨달음을 말한다.

39. ㉠~㉤ 중 공간적 성격이 <u>다른</u>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40. (가)~(마)에서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작품은?

> 승상이 크게 기뻐하여 왈 "우리 아홉 사람이 뜻이 같으니 쾌사라. 내가 내일 행할 것이니 오늘은 여러 낭자와 함께 진취하리라." 하더라. 여러 낭자가 왈 "저희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리이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홀연 석양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거늘 고이하게 여겨 보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고이하더라. ---(중략)---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더라.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1-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영종 황제 즉위 초에 열국 제왕들이 각각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만 믿고 천자를 능멸하여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거늘 한담과 일구 두 사람이 이때를 타서 천자께 여쭙되, 폐하 즉위하신 후에 덕이 만백성에게 미치고 위엄이 천하를 진동하여 열국 제신이 다 조공을 바치되 오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만 믿고 천명을 거스르니 신 등이 비록 재주 업사오나 남적을 항복받아 충신으로 돌아오면 폐하의 위엄이 남방에 가득하고 소신의 공명은 후세에 전함이니 복원 황상은 깊이 생각하옵소서. 천자 매일 남적이 강성함을 근심하더니 이 말을 듣고 대희 왈 경의 마음대로 기병하라 하시니라. 이때 유주부 조회하고 나오다가 이 말을 듣고 탑전에 들어가 복지 주왈 듣사오니 폐하께오서 남적을 치라 하시기로 기병하신다는 말씀이 옳습니까? 천자 왈 한담의 말이 여차여차하기로 그런 일이 있노라. 주부 여쭙되 폐하 어찌 망령되게 허락하였습니까? 왕실은 미약하고 외적은 강성하니 이는 자는 범을 찌름과 같고 들어오는 토끼를 놓침이라 한낱 ㉠새알이 천근지중(千斤之重)을 견디오리까? 가련한 백성 목숨 백 리 사장 고혼이 되면 그것이 아니 적악이리오! 복원 황상은 기병치 마옵소서. 천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로 의심하던 차에 한담과 일구가 일시의 합주하되, 유심의 말을 듣사오니 살지무석이요 오국간신 동류로소이다. 대국을 저버리고 도적놈만 칭찬하여 개미 무리를 대국에 비하고 한낱 새알을 폐하에 비하니 일대의 간신이요 만고의 역적이라 신 등은 저어하건대 유심의 말이 가달을 못 치게 하니 가달과 동심하여 내응이 된 듯하니 유심을 선참하고 가달을 치사이다. 천자 허락하다. 한림학사 공열이 유심 죽인다는 말을 듣고 복지 주왈 주부 유심은 선황제 개국공신 유기의 손이라 위인이 정직하고 일심이 충전하오니 남적을 치지 말자는 말이 사리 당연하옵거늘 그 말을 죄라 하여 충신을 죽이시면 태조 황제 사당 안에 유상공 배행하였으니 ㉡춘추로 행사할 때에 무슨 면목으로 뵈오며, 유심을 죽이면 직간할 신하 없사올 것이니 황상은 생각하여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자 이 말 듣고 한담을 돌아보니 한담이 여쭙되, 유심을 죄 주실 것이면 만사무석이오나 공신의 후예이오니 죄목대로 다 못 하오니 정배나 하사이다. 천자 옳다고 하시고 황성 밖에 원찬하라 하시니 한담이 청령하고 승상부 높이 앉아 유심을 잡아내다.

41. 위 글과 관련이 <u>없는</u> 내용은?

① 천자는 신하의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 인물이다.
② 유심의 선조는 나라를 세우는 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③ 같은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④ 유심의 주장은 현실론, 한담의 주장은 명분론에 바탕하고 있다.
⑤ 한담이 유심의 주장에 대하여 한 말은 필요한 부분만 확대한 견강부회의 성격이 짙다.

42. '유심'의 심적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삼동(三冬)에 뵈옷 닙고 암혈(巖穴)에 눈비 마자
　구름 ᄭᅵᆫ 볏뉘도 쬔 적이 업건마ᄂᆞᆫ
　서산(西山)에 ᄒᆡ지다 ᄒᆞ니 눈물겨워 ᄒᆞ노라
② 간밤의 부던 ᄇᆞ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ᄒᆞ믈며 못다 픤 곳이야 닐러 므슴ᄒᆞ리오
③ 싸움애 시비만 하고 공도시비(公道是非) 아니는다
　어이한 시사(時事) 이갓치 되엿는고
　수화(水火)도곤 깁고 더운 환이 날로 길어 가노매라
④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⑤ 이런들 엇더ᄒᆞ며 저런들 엇더ᄒᆞ료
　만수산(萬壽山) 드렁츩이 얼거진들 엇더ᄒᆞ리
　우리도 이ᄀᆞ치 얼거져 백년(百年)ᄭᅡ지 누리리라

43. ㉠과 통하는 속담은?

① 거미줄로 목을 맨다.
② 눈썹에 불이 붙는다.
③ 바늘로 몽둥이 막는다.
④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⑤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

4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여러 <u>춘추</u>를 그대 그리워 보냅니다.
② <u>춘추</u>를 읽어보면 역사를 알 수 있지요.
③ 춘부장께서는 <u>춘추</u>가 어찌 되시는지요?
④ <u>춘추</u>에는 예악을, 하동(夏冬)에는 시서를 가르친다.
⑤ 주나라의 동천(東遷)으로부터 <u>춘추</u> 시대가 시작되었다.

[45-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흉화복을 하날긔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깁픈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딥히 셥이 되야
셔홉 밥 닷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언매만히 바든 밥의 현순치자(懸鶉稚子)들은
장긔 버려 졸 미덧 나아오니
인정천리(人情天理)에 춤아 혼자 먹을넌가
----(중략)----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더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히 여기노라
평생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업더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외다 할 이 뉘 있으리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나) "뭐 어디 빈자리가 있어야지."
K사장은 안락의자에 폭신 파묻힌 몸을 뒤로 벌떡 젖히며 하품을 하듯이 시원찮게 대답을 한다.
두 팔을 쭉 내뻗고 기지개라도 한번 쓰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 눈치다.
이 K사장과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공손히 마주앉아 얼굴에는 '나는 선배인 선생님을 극히 존경하고 앙모합니다' 하는 비굴한 미소를 띠고, 있는 구변 없는 구변을 다하여 직업 동냥의 구걸(求乞) 문구를 기다랗게 늘어놓던 P……. P는 그러나 취직 운동에 백전백패(百戰百敗)의 노졸(老卒)인지라 K씨의 힘 아니 드는 한마디의 거절에도 새삼스럽게 실망도 아니 한다. 대답이 그렇게 나왔으니 인제 더 졸라도 별수가 없는 것이지만 헛일 삼아 한마디 더 해보는 것이다.
----(중략)----
동십자각 옆에까지 온 P는 그 건너편 담배 가게 앞으로 갔다.
"담배 한 갑 주시오."
하고 돈을 꺼내려니까 담배 가게 주인이, "네, 마꼬입니까?" 묻는다. P는 담배 가게 주인을 한 번 거들떠보고 다시 자기의 행색을 내려 훑어보다가 심술이 번쩍 났다. 그래서 잔돈으로 꺼내려던 것을 일부러 일 원짜리로 꺼내 드는데 담배 가게 주인은 벌써 마꼬 한 갑 위에다 성냥을 받쳐 내어민다.
㉥"해태 주어요."
P는 돈을 들이밀면서 볼멘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담배 가게 주인은 그저 무신경하게 "네에." 하고는 마꼬를 해태로 바꾸어주고 팔십오 전을 거슬러다 준다. P는 저편이 무렴해 하지 아니 하는 것이 더욱 얄미웠다.
그는 해태 한 개를 꺼내어 붙여 물고 다시 전찻길을 건너 개천가로 해서 올라갔다. 인제는 포켓 속에 남은 것이 꼭 삼 원하고 동전 몇 푼이다. 엊그제 겨울 외투를 사 원에 잡혀서 생긴 것이다.
방세와 전깃불 값이 두 달 치나 밀리었다.
----(중략)----
"나이 몇인데?"
"아홉 살."
"아홉 살?"
A는 놀래어 반문을 하는 것이다.
"기왕 일을 배울 테면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야지요."
"그래도 너무 어려서 원, 뉘 집 애요?"
"내 자식놈이랍니다."
P는 그래도 약간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A는 이 말에 가장 놀라운 듯이 입만 벌리고 한참이나 P를 물끄러미 바라다 본다.
[I] ┌ "왜? 내 자식이라고 공장에 못 보내란 법 있답디까?"
│ "아니 정말 그래요?"
│ "정말 아니고?"
│ "괘—니 실없는 소리……. 자제라고 해야 들어줄 테니까 그러시지?"
│ "아니 그건 그렇잖어요. 내 자식놈야요."
│ "그럼 왜 공부를 시키잖구?"
│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 "학교에 보낼 처지가 못 되고 또 보낸댔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 "거 참 모를 일이요.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 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엘 보내요?"
└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딴 공부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글쎄 정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리리다마는……. 원 너무 어린데 애처롭잖아요?"
"애처로운 거야 애비된 내가 더 하지요만 그것이 제게는 약이니까……."
P는 당부와 치하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45. (가)와 (나)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식들이 많아 배고픔에 고생하고 있다.
②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좌절한다.
③ 가난 속에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④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⑤ 가난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46. ㉠~㉤에서 (가)에 드러난 화자의 생활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47. ㉤의 발화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한자 성어는?

① 감언이설(甘言利說) ② 이판사판(理判事判)
③ 조삼모사(朝三暮四) ④ 허장성세(虛張聲勢)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48. (나)의 상황 전개로 보아 [ ]에 들어갈 P의 심리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① 한 짐 벗어 놓은 것 같이 몸이 가뜬하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② 남에게 맡겨 놓자니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③ 내친 김에 결정은 그렇게 했지만 확신이 서는 것은 아니었다.
④ 자신을 설득하려 한 A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⑤ 이제 밀린 방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49. [I]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A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P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② P와 A는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다.
③ P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④ P는 관점을 유연하게 변화시킴으로써 A를 설득시키고 있다.
⑤ A는 P의 논리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50. (가), (나)의 주인공이 <보기>의 인물들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흥부 아내 온순하고 서로 나서 품을 판다. 용정(舂精)하여 방아찧기 술집에 가 술 거르기 초상난 집 제복 짓기 가고(家故) 있는 집 그릇 닦기 굿하는 집 떡 만들기 시궁 밭에 오줌 치기 해빙(解氷)하면 나물 캐기 춘모(春麰) 갈아 보리 놓기 온가지로 품을 팔고 흥부는 이월 동풍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붙임질하기 일등 전답 무논 갈기 이집 저집 이엉 엮기 날 궂은 날 멍석 맺기 두 푼 받고 똥 재 치기 식전이면 마당 쓸기 이웃집 물주기 전주 감영 태전(駄錢) 지기 자기 집에 들어오면 아이 만들기 온가지로 다하여도 굶기를 밥 먹듯 하여 살길이 없는지라.

① (가) 힘들게 돈을 벌기보다는 인륜에 충실해라.
(나) 일을 하더라도 너의 품위는 잃지 말라.
② (가) 가난은 한스러운 것이니 꼭 극복하도록 해라.
(나) 일은 할 수 있으면 귀천을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
③ (가) 남의 밑에서 소작인 노릇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일을 얻을 때에는 다소 비굴한 태도를 취하여도 허물이 아니다.
④ (가) 너무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빈부는 하늘에 맡기고 살아라.
(나) 자식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글공부는 시키지 말라.
⑤ (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에 충성하라.
(나) 너는 그래도 할 일이 많아서 행복한 편이니 사회를 원망하지 말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